

이상돈의 '바른 소리'



2012년 대선을 돌아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다. 여의도 정기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산하다. 그런 가운데 2012년 대선 때 안철수 의원의 대변인을 지낸 금태섭 변호사가 당시를 회고한 책을 내서 화제가 됐다. 금 변호사는 “안철수 의원은 배후의 비선 조직 때문에 외부와 소통이 차단되어 있어 정상적 의사 결정이 되지 않았으며, 문재인 의원의 단일화 여론조사 협상 도중 별안간 후보를 양보해 버린 것도 비선 조직의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고 책에서 주장했다.

금 변호사는 당시에 여론조사를 했으면 안철수 의원이 야권 단일후보가 됐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2012년 대선 과정에서 가장 미스터리했던 모습이 ‘안철수 현상’이었다면, 가장 이해가 안 되었던 대목은 안 의원이 단일화 여론조사를 포기했던 순간이었다.

금 변호사는 안 의원이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승리했을 것이라고 보지만,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다. 나는 2012년 대선에서 야권 후보는 야당에서 나온다고 생각했고, 그 점을 4·11 총선 후에 나온 책에서 언급하기도 했다. 안철수

현상은 어디까지나 현상이고, 대선에선 정당이란 조직을 무시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2012년 당시 야당의 유력한 대권 후보는 손학규 전 대표와 문재인 의원이었는데, 나는 문 의원이 후보가 될 것으로 보았다. 4·11 총선을 앞두고 친노가 밀렸던 한명숙 전 의원이 당 대표가 되었으니 당 내부는 물론이고 외곽의 지지세가 탄탄한 문 의원이 후보가 되는 것은 당연해 보였다. 손학규 전 대표는 중도층의 지지도가 탄탄하지만 당시 야당의 전략이던 ‘진보 대통령’을 이루기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진보 대통령’의 한 축이던 통합진보당의 실체가 4·11 총선 후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민주통합당과 문재인 후보는 그런 통합진보당의 관계를 어정쩡하게 끌고 가다가 대선에서 고배를 마시고 말았다. 나는 이런 점에서 지금 전남 강진에서 접거하고 있는 손학규 전 대표가 양극단으로 치닫는 우리나라 현실정치에 의해 희생됐다고 보며,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손 전 대표에게 대해 얼마간의 부채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

한다.

당내 경선을 거쳐 거대 야당의 후보가 된 문재인 의원이 안철수 무소속 후보와 대등한 입장에서 여론조사로 후보 단일화를 한다는 것은 정당정치의 시각으로 볼 때에 아주 기이한 모습이다. 하지만 2002년 대선 때는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가 그렇게 단일화를 했고,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는 민주통합당 후보이던 박영선 의원과 박원순 무소속 후보가 그런 식으로 단일화를 했다.

여론조사의 맹점은 정작 투표장에선 그 정당의 후보를 찍지 않을 유권자들도 답을 한다는 것이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에서 패배해 고배를 마신 것도 이 때문이었다. 2012년 야권 대선후보 단일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면 새누리당 성향의 유권자들이 안 의원을 지지한다고 답했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이 당원과 외곽단체를 통해 구축해 놓은 네트워크가 워낙 탄탄해서 그런 효과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여론조사를 포

기하자 이를 제일 반긴 쪽은 박근혜 캠프였다. 당시 박근혜 후보는 인혁당 관련 인터뷰와 정수장학회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연거푸 실수를 해서 캠프의 분위기가 말이 아니었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폭위의 위원이던 나는 안대의 특위위원장이 “이런 상황에서 야권 단일화가 여론조사로 이루어지면 누가 야권 후보가 되든 선거에서 승리하기 어렵다”고 짐뚱해 하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 안 의원이 단일화 여론조사를 포기하자 문재인 의원은 ‘상처받은 단일 후보’가 됐고, 그런 사이 대선은 노 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했으니 어쩔수니 하는 식의 색깔론으로 흘러갔다.

모든 선거가 중요하겠지만 나는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민생경제와 국가재정이 너무 나빠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이다. 야권이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보다 냉철하게 분석해서 교훈을 얻고 거기에 걸맞게 쇄신을 해야 할 것이다.

<중앙대 명예교수>

종교칼럼

소통(疏通):소외(疏)를 잘 극복(通)하고 계십니까?



김영철 남동5·18기념성당 주임신부

수십 건의 장례식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장례가 몇 번 있었습니다. 한 분은 대세(명이 위중할 때 받는 세례)를 받은 남성 신자 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이미 호스피스병원을 알려 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뜻밖의 선한 미소를 보고 내심 놀랐습니다. 죽음을 담담하게 준비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있는 사람의 마음을 무엇이라도 편안하게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의 삶은 결코 평탄치는 않았으나 선한 삶을 살아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참 잘 대하고 살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분은 몇 년간 희귀병을 앓고 있던 젊은 여성 신자였습니다. 그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주위에서 저를 ‘장례전문 신부’(?)라 부르기도 합니다. 신자들을 하늘나라로 보내드리니 기뻐해야 할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볼 수 없으니 슬퍼해야 할지... 장례를 치르다 보면 고인(故人)에 대한 물음이 떠오릅니다. ‘이분은 어떻게 살았을까? 자신에게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리고 삶의 마지막은 행복했을까?’

자신은 물론 함께 소통했던 모든 이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가족들끼리 화목과 일치를 일깨워 주었고, 모두가 타인과의 만남을 통해 서로를 위로하고 희망을 주고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사람은 관계의 동물입니다. 나와 나 자신, 나와 너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아가는지에 따라 삶이 달라집니다. 사람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가끔 거울을 보면서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야, 그는 멋있는데, 참 잘 생겼어.’ 마음이 울적할 때는 ‘야, 너 괜찮아? 얼굴이 안 좋네. 힘내. 잊어버려.’ 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는 ‘야, 그랬어요? 미안합니다. 수고했어요. 당신 덕분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관계를 더욱 깊게 하고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한 마지막 기도(병자성사)를 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수년간의 병원 생활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고통을 이기려 애쓴 시간들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인간관계는 결국 말로 매게 된다’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기를 권고합니다.

“May I~(~해도 될까요?). Thank you(감사합니다). I am sorry(미안합니다).”

배려와 감사 그리고 용서는 인간관계를 잘 하기위한 소통의 지름길입니다.

이 글을 쓰는 동안, 남북의 극한 대치 속에 고위급 회담에서 극적인 타결이 있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소통은 인간을 소외로부터 극복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누가 이익이고 누가 손해고,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게임이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 다가서야 합니다. 6개의 항에 합의했다고 그 안에 진정성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이익을 위해 협상했을 뿐입니다. 소외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지 않은 맘으로 소통하려는 불순한 마음은 아닌가요? 진정한 소통을 위한 것인가? 불완전한 소통입니다. 일치를 위한 그 첫걸음이겠지요. 서로 실천하며 대한의 문을 열고 순수한 마음으로 대화해야 합니다. 진정한 소통은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나와 너를 살리는 말이어야 합니다.

기고

취업청탁 없는 대한민국 만드자



양성관 동강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

후 4시까지 면접이 이어졌는데 오전 면접자들은 대부분 아침식사를 거르고 긴장한 상태로 참석하였다. 질문에 응답하지 못한 지원자는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기도 했고, 꼭 합격하여 병석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기쁘게 해어줬다는 지원자도 있었다. 또한 자신을 잘 알리기 위해 다양한 면접도구와 실연을 준비해온 지원자도 상당수가 있었다. 정식 직원을 뽑는 것도 아니고 단지 6개월 동안 근무하는 인턴사원을 뽑는데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대한민국의 어려운 취업현실을 볼 수 있어 안타까웠다. 지원자 모두를 뽑아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광주지사의 경우, 지원자 200여명 가운데 대졸 1명, 고졸 1명을 뽑아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했다. 그러기에 지원자 한 명 한 명에 대해 신중하게 그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을 하여, 가장 적합한 대상이 누구인지를 평가하였다. 면접 후 공급하여 실무담당자에게 물어보았더니, 우리가 당일 가장 높은 점수를 준 지원자가 선발되어 근무한다는 것이었다. 즉, 외부의 어떠한 청탁 없이 면접관을 통해 평가된 자료에 의해 최고점수

를 받은 지원자가 선발되어 근무를 한다는 것이다.

얼마 전 TV에서 방영된 공익광고가 생각난다. “내가 하는 부탁이 남이 보면 위기라고 했고, 꼭 합격하여 병석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기쁘게 해어줬다는 지원자도 있었다. 또한 자신을 잘 알리기 위해 다양한 면접도구와 실연을 준비해온 지원자도 상당수가 있었다. 정식 직원을 뽑는 것도 아니고 단지 6개월 동안 근무하는 인턴사원을 뽑는데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대한민국의 어려운 취업현실을 볼 수 있어 안타까웠다. 지원자 모두를 뽑아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광주지사의 경우, 지원자 200여명 가운데 대졸 1명, 고졸 1명을 뽑아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했다. 그러기에 지원자 한 명 한 명에 대해 신중하게 그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을 하여, 가장 적합한 대상이 누구인지를 평가하였다. 면접 후 공급하여 실무담당자에게 물어보았더니, 우리가 당일 가장 높은 점수를 준 지원자가 선발되어 근무한다는 것이었다. 즉, 외부의 어떠한 청탁 없이 면접관을 통해 평가된 자료에 의해 최고점수

를 받은 지원자가 선발되어 근무를 한다는 것이다. 얼마 전 TV에서 방영된 공익광고가 생각난다. “내가 하는 부탁이 남이 보면 위기라고 했고, 꼭 합격하여 병석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기쁘게 해어줬다는 지원자도 있었다. 또한 자신을 잘 알리기 위해 다양한 면접도구와 실연을 준비해온 지원자도 상당수가 있었다. 정식 직원을 뽑는 것도 아니고 단지 6개월 동안 근무하는 인턴사원을 뽑는데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대한민국의 어려운 취업현실을 볼 수 있어 안타까웠다. 지원자 모두를 뽑아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광주지사의 경우, 지원자 200여명 가운데 대졸 1명, 고졸 1명을 뽑아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했다. 그러기에 지원자 한 명 한 명에 대해 신중하게 그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을 하여, 가장 적합한 대상이 누구인지를 평가하였다. 면접 후 공급하여 실무담당자에게 물어보았더니, 우리가 당일 가장 높은 점수를 준 지원자가 선발되어 근무한다는 것이었다. 즉, 외부의 어떠한 청탁 없이 면접관을 통해 평가된 자료에 의해 최고점수

개관을 앞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3200명 정도가 지원하여 100여명을 뽑을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문화전당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방법, 저러한 방법으로 취업청탁을 하였을까? 우리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공정한 기회의 나라라는 믿음을 갖고,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소박한 희망을 갖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김영란법’을 만들려고 했을 때 강하게 반대한 사람들이 가진 자들이고 권력자들 아니었던가? 정치인 갑질에는 힘을 못쓰는 ‘김영란법’이 있으면 무소속이 있겠는가? 6개월 근무하는 인턴사원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도 공정성을 최고로 생각하고 있는데, 자신의 말을 위해 원래 채용 계획에 없던 자리를 추가로 만들고, 모집의 조건까지 변경시켜버리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다. 이번 기회에 ‘취업현황 공개 입법’이라도 만들어 고급공무원과 국회의원 자녀들의 취업과 관련된 비리를 모두 찾아내어, 그들을 직위해제가 아닌 신분박탈을 해서라도 우리나라에서 ‘취업청탁’의 비리를 없애는 대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社說

여수 경도 복합리조트 선정 이제 본게임이다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복합리조트 후보지 선정을 마쳤다. 1차 후보지에 여수·인천·부산·진해 등 4개 지역 9개 사업자가 선정됐다. 인천에는 6개의 사업자가 몰려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에 2~3개 사업자를 최종 후보지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복합리조트 후보지 1차 선정에는 9개 지역에 34개 사업자가 신청할 정도로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경쟁이 치열해진 이유는 복합리조트가 외국인 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가 마리나베이샌즈 등 대형 복합리조트 건설로 관광 오락 부문 수입이 27배나 늘어난 것이 이를 말해준다.

이번 경쟁에서 여수 경도가 1차 관문을 통과한 것은 전남도와 여수시 등 지자체와 주민 및 정치인이 힘을 한데 모은 결과로 축하할 만한 일이다. 그렇지만 이제부터가 본게임이라고 보아야

한다.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치밀한 전략과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전남개발공사(전남도)는 여수 경도에 투자를 희망한 3개 컨소시엄(사업자)은 물론 더 많은 투자자를 대상으로 실현 가능한 최적의 투자 계획을 짜야 할 것이다.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면 5억 달러의 외국 자본을 포함해 1조 원 이상의 재무 능력을 갖춘 사업자를 찾아야 한다.

여기에 지역 정치권은 여수가 최적지라는 논리 개발과 함께 지역안배 차원의 배정 등 정치력을 보여야 한다. 정부는 대형사업 선정 때마다 접근성과 수익성 논리를 들어 호남을 배제해 왔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한 접근성과 수익성은 SOC가 취약한 호남으로선 공정한 선정 물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번만큼은 호남 유일의 복합리조트 필요성과 외국인 투자지역이라는 경도의 장점을 강조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주민 고통 외면한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가 불법 행위로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폐기물업체에 대해 행정심판을 ‘보류’해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심판이 미뤄지면서 수년째 분진 등 피해를 당한 이 업체 인근 주민들은 탄원서까지 제출했지만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광주 시구에 따르면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열린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 허가취소 처분 등 취소 청구’ 사건에 심리 ‘보류’를 결정했다. 문제는 해당 업체인 (주)명성환경이 하수정화 후 남은 찌꺼기를 무단 투기한 혐의로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을 받은 업체라는 점이다. 즉 불법 행위를 한 업체에 어떻게 계속해서 폐기물 처리를 맡기냐는 것이다.

판결에 따라 시구는 이 업체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고 폐기물 반입 금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주)명성환경이 이에 불복, 행정심판과 소송을 낸 것이다. 하지만 행정심판위가 이 업체에 대한 허가가 취

소되면 해당 업체에 폐기물을 맡기는 기업과 공공기관 등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행정심판을 ‘보류’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시구는 “하수 찌꺼기 무단 투기가 폐기물관리법상 허가취소 외에 다른 처분 규정이 없어 선처리 재량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업체 인근 주민들도 10년 가까이 환경 악영향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내린 처분이 잘못된 것인지를 판단하는 제도다. 행정심판위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결정하면 행정기관은 이 결정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심판위원회의 이번 ‘보류’ 결정은 자칫 불법 행위를 한 업체에 면죄부를 줄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오는 10월에 열린 행정심판위원회 심리에서는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 수년째 분진 등으로 피해받는 주민들의 고통을 들여다보고 현실과 동떨어진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될 것이다.

無等鼓

스누피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강아지 중 하나다. 올해로 태어난 지 65년이나 됐다. 전 세계에서 기념행사가 진행 중이고 국내에서도 ‘스누피 인 러브’(Snoopy in Love) 등 전시회가 열렸다. 하반기에는 3D 영화로도 만들어진다.

스누피는 신문 만화 ‘피너츠’에 처음 등장했다. 만화가 찰스 슐츠는 1950년부터 세상을 떠난 2000년까지 모두 1만 7897회를 연재했다. 비글을 모델로 한 스누피에겐 친구들이 있다. 개구쟁이 찰리와 여동생 셸

남녀노소의 사랑을 받는 캐릭터가 외국에만 있는 건 아니다. 우리나라엔 ‘둘리’가 있다. 만화가 김수영이 1983년 만화잡지 ‘보물섬’에 연재하며 처음 등장시킨 둘리는 올해 33살이다.

최근 만화 속 둘리의 주소지인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주택가에 둘리박물관이 문을 열었다. 둘리가 발견된 장소인 쌍문동 우이천 옹벽에 둘리 조각상을 다른 350m 길이의 벽화도 조성됐다. 도봉구는 쌍문동 일대를 둘리테마

파크로 조성, ‘한국판 지브리 스튜디오’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구청은 또 지하철 4

다. 아마 스누피와 친구들이 그려진 캐릭터 용품 하나쯤 소유해 보지 않은 이들은 없을 거다.

스누피보다 대중적이지는 않지만 판타드 산(産) ‘무민’도 인기 캐릭터 중 하나다. 무민은 초자연적 괴물인 ‘트롤’에서 따온 캐릭터로 희고 포동포동하며 주둥이가 커 허마를 닮은 귀여운 모습이다.

올해 무민은 70살이 됐다. 올해는 작게 인 토베 안손 탄생 100주년까지 겹쳐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다. 현재 상영 중인 ‘무민 더 무비’ 역시 70주년 기념작이다.

호선 ‘쌍문역’을 ‘둘리역’과 병기(併結)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일본 기타큐슈 공항과 쿠라역에 가깝게 출신 만화가 마스모드 레이지의 역작 ‘은하철도 999’ 주인공 대립과 철이차 사람들이 반긴다. 조만간 쌍문역에서도 둘리가 당신을 반겨 줄지 모르겠다.

세월을 뛰어넘는 장수 캐릭터 앞에 세대 차는 없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즐기고 행복해 빠지는 마법을 부리는 사랑스러운 캐릭터들이 좀 더 많아지면 좋겠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